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1100여명 사망·수천명 부상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 가세·미 항모 이동 배치 미국·이란 대리전 양상 국제전 확산...유가 4% 급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면서 중동 정세가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로켓포 공격을 퍼부으면서 시작된 이번 무력 충돌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바논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교전 이틀째인 지난 8일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고 나선 데 이어, 미국 정부가 항모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 등을 이스라엘에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대리전으로 전쟁이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약 4%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망자 1000명 넘고=유대 안식일을 노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에 대항한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으로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양측의 사망자 수가 1100명이 넘고 부상자 수도 이스라엘에서 2100명, 가자지구에서는 2300명 등 4400명에 달한다.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마스는 유대 안식일인 이날 새벽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발의 로켓포를 쏘고, 대원들을 침투시켰다.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 등 철동보안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방어시스템은 한꺼번에 쏟아진 로켓포탄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또 분리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침투한 하마스 대원들은 키부츠와 경찰서 등을 습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공식 전쟁 진입을 선언하고 전투기 등을 동원해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가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전쟁' 이후 최대 규모 무력충돌로 평가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2007년과 2014년에도 각각 22일과 50일에 걸쳐 전쟁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인 3500여명과 이스라엘인 70여명이 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즈볼라도 가세=이스라엘 북부지역에서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등장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헤즈볼라는 이날 레바논 및 시리아와 접경한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점령지 '셰바 팜스' (Shebaa Farms)에 여러 발의 로켓과 박격포를 쏜 뒤 배후를 자처했다.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은 셰바 팜스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영토 분쟁 대상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군은 포탄이 날아온 레바논 남부를 겨냥해 보복 포격을 가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저항군에 연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사들이 오늘 아침 레바논의 셰바 팜스 인근에 있는 시온주의자 군대를 공격했다. 포탄이 이스라엘군 레이더를 타격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양속인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공격에 개입하면서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의 무장세력까지 전쟁에 가담할 지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들 국가들을 이란의 '대리 세력' (Proxy)으로 부르고 있다.

하마스도 이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에 의한 전례 없는 끔찍한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 순양함인 노르망디함, 구축함인 토마스 허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모스크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파괴돼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전날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가한 뒤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양측에서 1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드너함, 매미지함, 카니함, 루스벨트함 등으로 구성된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이동을 명령했다.

◇중동 정세 악화하나= 이번 전쟁과 관련, 이스라엘이 이란과 적대적인 수니파 중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 협정을 맺으려 하자 '웨방 농기'에 나섰다.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등 아랍권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약'에 서명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브라함 협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수립도 추진하고 있었다. 중동 지역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만들려는 의지가 강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역시 수교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출범을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의 전제로 요구하는 등 몇 가지 장애물이 있긴 했지만, 이르면 내년 초에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이란으로서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관리들과 지역 소식통은 하마스의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이 안보를 원한다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으며, 사우디와의 거래는 이란과의 '데탕트'를 좌절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도 알자지라 방송에서 "당신들(아랍국가)이 (이스라엘과) 체결한 모든 정상화 합의는 이 분쟁을 종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공을 들여온 미 행정부는 이번 무력 충돌이 중동 데탕트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는 외무부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확전 중단"과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면서 "왕국은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점령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 박탈로 인한 폭발적 상황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는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통치하는 무장 정파

이스라엘 공격 하마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는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한 뒤 2007년 가자지구에서 파타 정파를 몰아내고 독자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남부 지중해에 인접한 지역으로 200만명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함께 수십년간 분쟁이 이어진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활동한다.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차지한 이후 이스라엘을 겨냥한 무장투쟁을 벌여왔으며 양측은 이번 충돌 전에도 이미 네 번의 전쟁을 치렀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무력 저항을 주장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는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해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별도 국가로 공존한다는 개념)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시사해왔다.

하마스는 이집트와 가자지구 국경 아래 터널을 이용해 무기와 물자를 들여와 로켓 수천기와 드론을 만들고, 수년에 걸쳐 이를 이스라엘에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차지한 이후 전력 공급 중단, 수입 제한, 국경 폐쇄 등 다양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고, 이스라엘도 가자지구에 대한 반격을 이어왔다. /연합뉴스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입 역대 최대 규모 9800억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총수입이 1조원에 육박해 역대 아시안게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광명일보 등 현지 매체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지난 5일 기준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으로 벌어들인 총수입이 53억1600만위안(약 9800억원)이라고 밝혔다. 주요 수입은 176개 기업이 후원한 44억 1780만 위안(약 8200억원)과 마스코트 등 라이선스 상품 매출 7억 6000만 위안(약 1400억원)이었다.

조직위는 후원 업체와 후원금 규모가 역대 아시안게임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프간 20년만에 최악 지진 2천여명 사망

12개 마을 주택 600여채 완파 해외원조 중단으로 심각한 위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24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재난부 대변인은 "사망자 수가 2445명으로 증가했고 부상자 수는 '2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이 아프간에서 20년 만에 일어난 최악 지진들 가운데 하나로, 피해 집계가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사상자 수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강진과 관련해 헤라트주 내 최소 12개 마을에서 600여채 주택이 완파되거나 부분 파손됐다며 약 4200명이 영향을 받

았다고 말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7일 오전 아프간 북서부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 후에도 규모 4.3에서 6.3 사이의 여진이 여덟 차례 이어졌다.

진앙은 헤라트주 주도 헤라트 북서쪽 40km 지점이고 진원 깊이는 14km로 비교적 얕았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해외원조가 중단되면서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란 국경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헤라트는 아프간 문화 수도로 꼽힌다. 2019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헤라트에는 약 190만명이 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국경지대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교차해 힌두쿠시 산맥을 중심으로 지진이 잦은 편이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동우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